이베로아메리카 제4집(2002년)

포르투갈의 모더니즘 운동*
-페르난두 뻬쏘아 (Fernando Pessoa)와 가상인물(Heterónimos)의 세계-

송 필 환**

Ⅰ. 서 론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운동은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각 국에서의 발전 형태 또한 그 문화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대화(modernização)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문학행위를 지칭할 수 있으며 이전의 전통적인 문학관에 맞서는 전위적(vanguardista)이고 실험적(experimental)인 형태의 문학을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개념에서는 20세기 근대화 과정 속의 불안한 물질, 정신세계에 일치되는 인간형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르투갈 모더니즘 문학의 태동은 "포르투갈 재생운동 (Renascença Portuguesa)"[1]의 일원이었던 페르난두 뻬쏘아 (Fernando Pessoa, 이하 뻬쏘아)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고 있다.그는 1912년에 발표된 "사회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포르투갈의 시 (A Nova Poesia Portuguesa Socialogicamente Considerada)"에서 문학운동의 가치와 의의를 바르게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조교수

1) Teixeira de Pascoaes가 주축이 되었던 포르투갈 향수주의의 중심 기관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띰. 기관지인 A Aguia는 1910에서 1932년까지 발간되었던 당시 문학의 가장 중요한 문예지였다.

이해하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문학은 그 문학이 속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상을 제시해야하며 그 사회적 역할로 보아 함축성을 가진 시가 가장 적절한 장르임을 주장했다. 또한 문학은 단순한 정치적 외침이 아닌 미래의 "문명(civilização)"을 제시하는, 한 국가와 시대가 직면한 삶의 풍요와 생명력을 가리키는 사회적 지표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삶의 풍요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의 틀을 세우는 위대한 문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위대한 문명을 예고하는 시인을 등장시켰고 위대한 시인은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뻬쏘아는 위대한 포르투갈의 재건을 위해 까몽이스(Camões) 이후 잠들어 있던 민족의 혼을 깨워줄, 까몽이스를 능가할(Supra-Camões) 위대한 시인의 출현을 예언하였다.

포르투갈 현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비인격화(Despersonalização)"였다. 이는 자신의 내부 세계를 완벽하게 문열,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뻬쏘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현대문학의 천재 시인 마리우 드 싸 까르네이루(Mário de Sá-Carneiro)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뻬쏘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정신 분열적 히스테리(Histeroneurastenia)라고 이야기했듯이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 혹은 '나들'을 자신과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사고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는 작업이야말로 당시 초기의 모더니스트들이 이르고자했던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였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가상인물(Heterónimo)"들의 창조였다.

Ⅱ. '오르페우(Orpheu)'

1915년, 계간 문학잡지인 '오르페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는 포르투갈 현대문학을 알리는 포성이었으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향수주의 문학(Saudosismo)에 젖어 있었던 포르투갈의

문단에 몇 몇 젊은 작가들에 의해 출간된 '오르페우'는 기존의 몰개성적이고 편파적인 다른 문예지와는 달리 삶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대의 정확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자는 선각자적 젊은 세대의 이상을 표방하며 포르투갈과 브라질에서 동시에 발간되었다. 루이스 드 몬딸보르(Luís de Montalvôr)와 호날두 드 까르발류(Ronaldo de Carvalho)가 각 국의 책임자를 맡았고 마리우 드 싸 까르네이루(Mário de Sá-Carneiro), 알프레두 기자두(Alfredo Guisado), 알마다 네그레이루스(Almada Negreiros), 꼬르뜨스 호그리그스(Côrtes Rodrigues) 그리고 뻬쏘아와 그의 가상인물들이 참여했다.

사회적 현상으로의 유행이란 단순히 머리의 모양이나 의복의 변화 뿐만 아닌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시의 사고(pensamento) 역시 새로움을 갈망하는 젊은 학자들에 의해 그 틀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권태, 어지러움, 흥분과 침잠의 교차, 피곤 등이 당시 시인들의 주요한 표현들로 등장하였고 예민한 신경을 나타내는 '히스테리'적 성향이 병적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판이한 현실을 앞에 두고 심각한 구토 증세를 보이고, 다시 고독 속으로 빠져드는 나약한 자신을 조명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를 조각 내고 그 조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르주아적 전통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20세기의 물질 및 정신세계에 인간을 일치시키는 모더니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출하였다. 상징주의와 퇴폐주의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 미래주의, 입체주의를 표방하고 포르투갈 현대문학사의 자생적 사조들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학을 추구하였다. 개인적, 민족적, 지역적인 편협을 탈피하여 보다 세계적인 사고를 가지려했으며 미학적 조화 속에서도 전통의 문학에 맞서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선원(O Marinheiro)", "금빛 징후(Indício de Oiro)"등의 작품을 담은 이 잡지의 발간 후 문단의 수많은 비평가들은 저 마다 이들을 정신병자

들로 취급하며 악평을 서슴지 않았다. 개념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젊은 시인의 노래는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야기 시켰으며 억압된 감정의 폭발로 전통의 미학과 정면으로 대치하였으며 개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문체들은 객관적 묘사보다 주관적인 의식의 흐름을 보다 중시하였다. 특히 미래주의의 영향으로 완전한 자유시의 추구와 파괴적인 의식, 힘의 문학이 중심 사상으로 부각되었다.

'Sensacionismo(감각주의)'는 '오르페우'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조로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며 포르투갈 현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첫 단계는 '빠울리즘(Paulismo)'[2]으로 꿈꾸는 듯한 시인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후기 상징주의적 성향을 띄고있으며 주체와 객체의 자의적 혼동, 권태와 영혼의 공허함, 사물에 대한 두려움등을 표현하였고 시각적인 미학을 강조하며 영상 미와 풍경을 도입하는 영화와 같은 기법으로 불연속적인 감정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형태와 통사의 파격으로 과감한 생략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문자의 사용으로 특정 용어에 정신적 깊이를 부여하였다. 공허한 상상과 급변하는 사고의 전환 그리고 복잡한 구성의 특성을 보이는 이 사조는 뻬쏘아의 다른 작품인 "Hora Absurda", "Salomé" 그리고 싸 까르네이루의 "Apoteose"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빠울리즘'을 대체하며 등장한 '교차주의(Interseccionismo)'는 반대 성향의 대조와 서로 다른 현실의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실재하는 외부의 풍경과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 현재와 과거 혹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함께 구성함으로 인간의 외부 현실과 내부의 감정을 교차시키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개의 꿈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져 몽롱

2) Paulismo의 어원은 뻬쏘아의 시 "Impressões do Crepúsculo"의 첫 단어를 인용한 것으로 Pauis는 이집트 전설에 등장하는 거대한 새를 이른다.
"Pauis de roçarem ânsias pela minh'alma em ouro...
Dobro longínquo de Outros Sinos... Empalidece o louro
.... (후략)"

한 상태에서 여러 세계를 떠다니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그 중 어떤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지 혼동되는 다중적인 나를 바라보게 된다. 뻬쏘아의 습작으로 알려진 "A Floresta do Alheamento"에서 이미 시도되었으며 '교차주의'의 대표작으로는 "Chuva Oblíqua"가 있다.

마지막 단계인 '감각주의(Sensacionismo)'는 위의 두 사조와 어우러져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문학예술로 나타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감흥을 가지며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인 것이다.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완전히 나와 결별된 독립적 인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예술 행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비인격화' '비인간화'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Despersonalizacao","Desdobramento"의 개념은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위한 기초 작업이며 모더니즘 작가들이 추구한 객관화의 완성이었다.

Ⅲ. 뻬쏘아의 삶

포르투갈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페르난두 뻬쏘아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 예술 전반에 거세게 불어 닥쳤던 전위주의(Vanguardismo) 운동과, 양 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했던 시기에 포 문학을 모더니즘으로 이끄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간과 사물과의 완전한 연관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시각에서 세상을 시적으로 재창조하려했다. 즉,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속에 인간의 한계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그의 삶이자 시였다.

1888년 6월 13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출생한 뻬쏘아는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 어머니의 재혼 등으로 어린 시절 이미 외로움과 죽음에 대

한 깊은 사고를 하게되었고 이것들은 후에 그의 중요한 시적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로선 높은 교육을 받았던 어머니[3]는 어린 시인에게 불어, 라틴어 등을 가르쳐 훗날 시인의 창작 영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재혼과 동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의 영사로 떠나는 새 아버지를 따라 뻬쏘아는 머나먼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이 여행은 그의 시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가 만일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다면 후에 시인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후일 포르투갈의 유명한 뻬쏘아 연구가인 주앙 가스빠르 씨몽이스(João Gaspar Simões)는 그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사실 오랜 뱃길을 여정으로 리스본을 떠나야했던 시인에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행이었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드는 불안한 항해였던 것이다. 이러한 심정을 그는 훗날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해양송가(Ode Marítima)에서 부두를 오가는 배들을 보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신비한 기쁨과 슬픔이여"라고 묘사하고 있다.

영국치하에 있던 더반에서 뻬쏘아는 10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게되며 밀튼, 바이런, 쉘리, 키이프, 포우의 서적을 읽게 되고 문학에 심취하게 된다.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어린 시인은 더반의 '까부(Cabo)' 대학 입학시험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외국인에게는 한번도 수여된 적이 없었던 빅토리나 여왕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진학을 포기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시인은 포르투갈어로 자유스런 작문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상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과 포르투갈어에 대한 애착으로 포르투갈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했고 곧 포 문학의 중심작가로 능력을

3) Maria Madalena Pinheiro Nogueira. 아쏘리스 출신인 어머니는 당시 여자로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 뻬쏘아에게 불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등 시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사후 뻬쏘아는 삶의 중심을 잃은 듯 하다고 회상하였다.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형식에 얽매였던 당시의 문단에 반향과 비판을 감수해야 했으며 실제 대부분의 작품은 단편적으로 당시의 문예지에 발표되었기에 1935년 그의 사후에야 진정한 평가와 출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Ⅳ. '가상인물(Heterónimos)'의 창조

뻬쏘아의 가상인물의 창조 작업은 1935년 1월 13일, 동료였던 아돌푸 까자이스 몬떼이루(Adolfo Casais Monteiro)에게 보낸 서신에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어린시절 경험했던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어머니의 재혼 등을 통한 배신감의 작용으로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더반으로의 이주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시기에서 야기되는 극심한 고독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 등장한 최초의 가상인물의 형태는 그의 나이 6살에 "슈발리에 드 빠(Chevalier de Pas)"라는 불어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다.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인물에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는 혼자만 놀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편지에 의하면 정확히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슈발리에 드 빠"의 라이벌로 역시 외국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자신의 주위에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작업은 다양한 시기와 형태로 계속되었고 그의 평생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성향이었다.

본격적인 가상인물의 등장은 1914년에 이루어진다. 편지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 일어선 채로 종이를 잡고 30여 편의 시를 쉬지 않고 써내려 가게 된다. 그 날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승리감에 휩싸인 날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글쓰기를 마친 그는 "양치는 목동

(O Guardador de Rebanhos)"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작자로 알베르뚜 까에이로(Alberto Caeiro)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어 그의 제자들인 히까르두 헤이스(Ricardo Reis)와 알바루 드 깜뿌스(Álvaro de Campos)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시인의 스승이자 동료로 시인이 처했던 의문과 고민을 함께 토론하였고 전혀 새로운 사고와 문장을 표현하는 또 다른 시인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첫 번째 반응은 '신비'하다는 것이었다. 그 신비를 직관하는데서 오는 번민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해답에서 오는 우울한 감성들이 거의 모든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다. 즉 그를 혼돈 시키는 것은 규범을 이탈한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 그 자체의 수수께끼였던 것이다.

> "이것만이 현실일 수는 없다!
> 바다, 하늘 그것은 단지 하나의 커튼에 불과 할 뿐!
> 이 안에 있는 것만이 현실은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정신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눈에는 가려진 일면만이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른 일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신적 한계와 무능력에서 오는 비통함에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은 시인에게 직관을 깨우쳐줄 능력은 주지 않은 채 마치 무지의 허공에 매달린 느낌만을 줄 뿐 이었다. 결국 지성적 사고는 시인에게 점점 더 큰 고통을 주게 되고 참담한 이성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사고가 결여된 무생물의 상태를 동경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하였다. 그는 거리의 나무와 강가의 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철학은 얼마나 훌륭한가. 무엇 때문에 사는 지도, 무얼 모르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완전한 그들의 무념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외면적 무념과 평안도 내면적인 완전한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알고 있기에 시인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마침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각화시키는 '가상인물(Heterónimos)'을 창출하게 된다.

그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의 죽음으로 내향적 성격을 가졌던 그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미 여섯 살의 나이에 "슈발리에 드 빠"라는 필명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인은 이런 경험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즉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분리해 내고 그들에게 삶과 영혼을 부여하여 완전한 하나의 독립체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밟아보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 속에 존재하는 여러 꿈들을 실현해 보일 새로운 인간들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가상인물'들의 창조였다.

생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무철학, 무사고의 자연인 '알베르뚜 까에이루(Alberto Caeiro)를 만들었다. 그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목동으로 전원에서 양을 키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뻬쏘아의 진정한 스승이며 이상형이었다. 단지 자연을 사랑하고 현실과 현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어떠한 철학과 종교도 거부하며 무념의 감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내겐 철학이란 없다. 단지 느낌이 있을 뿐...
내가 자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연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순수함이며
유일한 순수함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 믿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나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애기해야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4]

빼쏘아와 까에이루의 가장 큰 차이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 있다. 빼쏘아는 그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까에이루는 객관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스런 의문으로 항상 번민하는 빼쏘아에게 까에이루는 생각한다는 것, 즉 사고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빗속을 거니는 것처럼 불편한 일.
바람이 거세지고 비가 더 올 것만 같은 길을."[5]

그는 자신의 글을 읽게 될지도 모를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야망도 욕심도 없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야심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혼자 있기 위한 나만의 방법일 뿐"[6]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글을 쓸 뿐이며 시인이란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것은 자연을 배반하는 것이라 단정했으며 미래는 추측과 공상의 장으로 객관적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보는 것만이 시인의 최선의 행동이며 그 속에 집중된 영혼과 더불어 무 저항적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새는 날아가고, 사라져 버린다. 그럴 것이다
이미 그곳에 있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전에 있었음을 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

4) Alberto Caeiro, O Guardador de Rebanhos, - Obras Poética e em Prosa, António Quadros,Lello & Irmão, Porto, 1986.
5) Ibid.
6) Ibid.

추억이란 자연에 대한 배신이다
어제의 자연은 이미 오늘의 그것이 아니기에
날아라 새야, 날아라, 나에게 지나가 버리는 것을 가르쳐주렴!"

이렇게 까에이루는 단절 속에서 자연을 노래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사물을 '본다(ver)'는 것으로 형이상학적 견해와 사고를 분리하려 하였다. 즉 그의 시는 사고의 완전한 배제에서 창출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가상인물'로 고전주의 시인인 히까르두 헤이스(Ricardo Reis)는 예수 학교의 교육을 받은 의사로 설정되어있다. 그는 가상인물들 중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시인으로 브라질로의 망명 생활을 하였고 라틴어에 능통한 인물로 그리스 문화와 스스로의 교육을 통해 헬레니즘적 요소를 띄게 한 인물이다. 그는 까에이루와 달리 자신의 성을 쌓은 현실적인 인물, 운명, 죽음 등에서 벗어난 고전적인 사고로 번민하여 그리하여 쾌락주의, 금욕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 상대적인 기쁨을 누려보려 했지만 항상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대한 슬픔으로 우울한 생활을 계속 하였다. 카에이루가 원초적이며 타고난 지식인이며 본능적 순수함을 간직한다면 헤이스는 사회화된 인간으로 타락한 이교도였다.

"그리스도여, 당신을 경멸하며 원치도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진부한 것,
당신은 그 신들보다 더도 덜도 아닌
단지 조금 새롭다는 것 외엔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오."[7]

그는 신학교의 교육으로 인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고전적 신과 동일한 위치에 놓아두고 있다. 이러한 신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신을 찾고, 어떠한 신들도 완전한 자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음을

7) Odes, de Ricardo Reis, 1916.10.9.발표

자각하게 된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던가, 많은 여인을 경험하여 생의 쾌락과 유희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 또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라 하겠다.

헤이스는 항상 변화하는 자신의 운명에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 최소한의 고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인생에 다가올 고통과 괴로움을 가급적 피해가며 현실적인 쾌락을 즐기려 한 것이다. 그의 시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은유를 포함하고 과감한 생략과 지적표현, 호라시아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일상적 용어에서 벗어난 본성적 느낌의 언어구사로 인해 그 시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인물로 뻬쏘아는 가장 전위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인 알바루 드 깜뿌스(Álvaro de Campos)를 만들어 냈다. 그는 뻬쏘아 자신과 가장 흡사한 인물로 기계주의와 현대문명을 찬양하는 선박기술자로 특정 지어져 있다. 새로운 혁신에 굶주려진 현실 속에 보다 강력한 혁명을 갈구하고 부패된 귀족사회의 연약함과 정체된 사회현상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고 있다. 타락한 사회의 현상 속에 빠져 때론 아편을 탐닉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자유스러움과 강한 행동력을 중시하였고 지적이며, 힘의 미학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띄었다.

20C초 불어닥친 마리네띠의 미래주의(Futurismo)의 영향으로 전통문화에서의 탈피, 자유를 외치며 포르투갈의 문학에 자유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월트 휘트만의 영향으로 강력한 정신, 인간성의 충일과 구현을 주장하였고, 또한 시는 정치, 경제, 과학, 종교의 기본적 진실을 노래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적 고양을 위한 계몽 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시인의 즉물적 객관주의의 시학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투시의 회피와 공적 가치의 세계로부터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깜뿌스는 포문학사에 있어서 전위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현대문학을 이끌어 갔으나 말기에 이르러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알콜리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침울하고 우울한 시인으로 변모되어간다. 오랜 투쟁의 선두에서 뛰었건만 변화되지 않은 세상을 직면하여 파멸된 인간

으로 쓰러져 가는 것이었다.

"내가 원했던 추상적인 문들은 모두 닫혀있었다.
거리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모든 가정들을 가리우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올바로 찾아갔을 때도 내가 찾던 번지는 그곳에 없었다."[8]

V. '쁘레젠사(Presença)" - 포르투갈 현대문학의 계승

1915년 오르페우의 창간 이후를 1기 모더니즘으로 본다면 1927년 쁘레젠사[9]의 탄생은 2기 모더니즘의 시작이었다. 전기의 오르페우 세대는 향수주의 문학과 부르조아적 사회 이념에 반발하는 자유로움으로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야기하였고, 억압된 감정의 폭발로 전통의 시학에 대치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의 확인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후기의 쁘레젠사 세대는 정신적으로 오르페우를 계승하였지만 문학의 가치를 재검토하려는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들은 문학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작가의 가장 내적, 가장 진실 된,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발생되는 문학으로 이를 "살아있는 문학(Literatura Viva)"[10]라 명명하였다. 정치적 색채를 지양하고 인간의 내면세계의 성찰에 초점을 맞춘 지적 심리주의 경향은 이후 지나친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었지만 예술의 한계를 부인하며 그 원천을 인간과 인간의 내면세계로 규정하여 "예술지상주의(Arte pela Arte)"를 극복한 "인간지상주의(Arte pelo Homem)"를 표방하였다.

---

8) Lisbon Revisited (1926), 1926,4,26.발표

9) 1927년에서 1940년까지 총 56권 발행됨.
참여작가로는 Fernando Pessoa, António Botto, Afonso Duarte, Mário Sáa, Edmundo de Bettencourt, Miguel Torga, José Régio, Luís de Montalvor 등 포르투갈 문학상 가장 방대한 그룹을 형성

10) 1927년 쁘레젠사 창간호에 실린 주제 헤지우(José Régio)의 창간사로 포르투갈 문학의 문제점을 독창성(Originalidade)과 진실성(Sinceridade)의 결핍으로 규정함.

이러한 태도는 예술이 잠재의식의 힘에 의해 지지되고 인상과 의미가 역설적 형태로 표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쁘레젠사 세대의 중요 역할은 먼저 그 위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오르페우 세대의 작가에 대한 재조명으로, 뻬쏘아, 싸 까르네이루, 네그레이루스 등을 포르투갈 최고의 현대 시인으로 평가받게 했으며, 문학 뿐 아니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도입,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외국작가의 주요작품을 번역, 소개함으로 포르투갈 문학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치적을 남기고 있다. 1940년 알브스 흐돌(Álves Redol)의 가이베우스(Gaibeus)가 발표되며 시작된 신사실주의 시대 이전까지 쁘레젠사는 문단의 중심으로 남아있었다.

VI. 결 론

향수문학의 영향 아래 모습을 드러낸 뻬쏘아르 비롯한 젊은 시인들은 곧 이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싸 까르네이루, 싼따 히따 삔또르 등 빠리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미래주의와 입체주의의 영향은 뻬쏘아의 감각주의로 포르투갈 문학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세계로 이끌게 되었다. 초기 모더니즘 운동은 상징주의와 퇴폐주의적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빠울리즘, 교차주의, 감각주의로 이어지는 이들의 문학은 유럽 문학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뻬쏘아와 싸 까르네이루에 의한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이들을 가장 높은 단계의 시인으로 끌어 올렸으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가상인물로 그 완성을 보았다. 자신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분리하고 그 탯줄을 잘라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완전한 형태의 새로운 문명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 가상인물 이외에 뻬쏘아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약70여 개의 필명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직업과 성격들로 인해 뻬쏘아는 그 성격을 규정짓기 어려운, 난해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고(Pensar)와 존재(Existência)라는 두 가지의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인이었다. 또한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가상인물인 Heterónimos로 표출해내 그 해답을 스스로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작업을 했던 인물이었다. 생전에 단 하나의 포어 시집(Mensagem)과 두 권의 영 시집 만을 발표했을 뿐인 시인의 작업들은 사후에 많은 연구가들의 노력으로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지금은 포르투갈 현대문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António José Barreiro, *História da Literatura Portuguesa, vol.2*, Pax, Braga, 1992.

António Quadros, *Fernado Pessoa-Obra Poética e em Prosa*, Lello & Irmã-Editores, Porto, 1986.

Teresa Rita Lopes, *Pessoa, Sá-Carneiro e as Tres Dimensões do Sensacionismo,* in Colóquio/Letras, 4, Lisboa, 1971.

Yvette Centeno, *Os Fantasmas de Orpheu*, in Cultura Portuguesa, Lisboa, 1981.

Orpheu, Ediçao Facsimilada, Contexto, Lisboa, 1989.

Presença, Ediçao Facsimilada, Contexto, Lisboa,1993.

<Resumo>

Com a publicação em 1915 da revista literária *Orpheu* abriu-se uma nova era na literatura portuguesa. Nesta revista a literatura portuguesa acompanhou o caminho seguido pelo Modernismo no resto da Europa. Fundada por Luís de Montalvôr e Ronaldo de Carvalho na qual estavam os poetas mais representativos deste movimento em Portugal. Fernando Pessoa, Mário de Sá-Carneiro e Almada Negreiros. Os dois primeiros já tinham dado o seu contributo à revista *A Águia* de 'Renascença Portuguesa' dirigido por Teixeira de Pascoaes. O objecto deste grupo era a oposição à literatura portuguesa tradicional e ir ao encontro do pensamento inquieto do século XX. assumiram uma posição e chista chegando mesmo à blasfémia.

Criaram uma literatura de novos valores, baseados no pregmatismo científico. Esta atitude causou um grande escândado nos meios literários e com esta revista criticaram o antigo tradicionalismo presente na literatura que os antecedeu, demonstrando uma nova forma de estar na arte, através da manifestação de uma escrita inovadora. Na transição do Simbolismo para o Modernismo apareceram muitas revistas lirerárias. que divulgaram as tendências mais recentes na Europa. Algumas destas revistas não só abriram novas perspectivas, mas também as desenvolveram e solidificaram.

Fernando Pessoa é um dos poetas com mais originalidade e que apresenta maior complexidade. O poeta conseguiu separar os outros 'Eus' que existiam no seu Eu, criando algumas alternativas como: o mestre Alberto Caeiro, o Dr. Ricardo Reis e o Eng. Álvaro de Campos - a criação dos Heterónimos.